

# 광주지하철 영업손실 5년간 3189억원

노인·장애인 무료승차 매년 증가 추세

전국 388개 공기업 부채 69조 부실 심각

광주·전남 등 전국 자치단체가 시민의 세금을 투자해 설립·운영중인 지방 공기업의 경영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88개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2008년 말 47조8000억 원에서 2011년 말 현재 69조1000억 원으로 45%(21조 3000억원) 증가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7개 지

하철 공사는 2007년 이후 5년간 매년 8000억~9200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자본금 32조2000억원 대비 자기자본은 18조1000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이 44%에 이르렀다.

특히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매출원가율(매출원가/매출액)이 2011년 기준 585%·매출 100원에 매출원가 585원 소요)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메트로(108.1%)의 5배, 대전도시철도공사(242.5%)의 2배가 넘는 수치로, 영업손실이 심각

하다는 의미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매년 507억~710억원씩 영업손실을 내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영업손실액만 3189억원에 이른다. 광주시는 이 기간 동안 1396억원을 보조했다.

다만,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영업손실액 중 정부의 공공요금 감면 관련 법률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무료 승차액이 2007년 37억4700만원

에서 2008년 48억2600만원, 2009년 52억6600만원, 2010년 54억7000만원, 2011년 62억3200만원 등 총 255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령화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지하철 운임감면 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100% 부담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에 역행하는 것으로 관련법 개정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의 순이익률도 지속적으로 하락, 영업이익으로 부채의 이자비용마저도 충당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07년 1.2%였던 총자산 순이익률이 2011년 현재 0.1%로, 전남개발공사는 2007년 0.7%에서 2011년 -0.9%로 추락했다. 광주도시공사의 2011년 말 현재 금융부채는 4284억원으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0.1%, 전남개발공사의 금융부채는 5300억원으로 이자보상배율이 0.29%에 불과했다.

실제 2011년 기준으로 광주시도시공사의 영업이익은 26억원인데 반해 이자비용은 213억원이었으며, 전남개발공사도 영업이익 24억원에 이자비용은 237억원이나 됐다.

또,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100% 출자된 전국 32개 기타 공사 중 영업손실이 지난 3년 이상 지속된 기관은 15개로 46.8%였으며, 광주·전남에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여수시도시공사가 포함되는 불명목을 암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영업손실액은 2011년 27억5800만원 등 지난 4년간 131억5800만원에 이르며, 여수시도시공사도 같은 기간 31억76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상정 보류 ‘RDF 동의안’ 시의회 오늘 임시회 처리

광주시의회가 논란 끝에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던 ‘RDF(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 계획 동의안’을 2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전망이다. ‘원포인트 의회’는 정례회나 임시회와는 별도로 긴급을 요하는 현안처리를 위해 단 하루 개최하는 의사진행 절차다.

광주시의회는 ‘RDF 동의안’ 심의를 위해 29일 오전 10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제216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던 ‘RDF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 계획 동의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의회는 이날 임시회 개최에 앞서 전 의원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포인트 의회’를 개최키로 한 것은 사업의 시급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까지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국비예산 확보가 어려워져 오는 2015년 상무소 각장 폐쇄를 앞두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광주시의 입장장을 수용한 것이다.

광주시가 제출한 ‘RDF동의안’은 상무소각장을 대체할 RDF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총사업비 1100억원 가운데 45%를 민간투자로 공모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50%는 국비, 5%는 광주시 출자로 충당한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오는 2015년 말까지 광주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 부지에 하루 800t의 생활쓰레기와 신재생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RDF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광주 남구의회와 주민대책위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정부 재정집행 지방 중심 재검토해야”

###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영천서 간담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27일 “국민의 생활 현장이 바로 지방”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북 영천에서 열린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정부는 지방이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분권과 재정, 균형 등 지방자치의 3대 과제를 제시했다.

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 “123개 기초단체가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 재정이 어렵다”며 “국정사의 이뤄지는 곳은 현장인 지방인데 집행은 중앙에서 많이 한다며 재정구조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재정부 담비율이 현재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는 것을 국비 70%, 지방비 30%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도지사협의회도 국무회의 참석이라든지 정례회의 통해서, 지방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지경기자 jkpark@

## ‘불구’ ‘정신박약’ 용어 사라진다

### 전남도 장애인 차별 용어 개정

희사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조례에서 ‘불구’ ‘정신박약’ 등 장애인 차별적 용어가 사라졌다.

전남도의회 강성희(민주·목포) 의원은 30일 “전남도 조례 중 장애인 차별적 요소가 있는 용어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도의회 제276회 임시회 기

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일괄개정에 대해 “장애인을 등등한 인격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 용어에서 차별적 요소를 없앤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개성공단의 눈물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조치를 내린 가운데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물류센터에서 개성공단 관계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 전남 건설업체 55% 무늬만 전남업체

### 이순신대교 道·여수·광양 공동 관리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부) 제276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는 도내 공사를 따내기 위한 건설업체의 하위 주소지 등록과 부실한 배수펌프장 비상전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수십억원에 이르는 이순신대교의 관리를 당분간 전남도·여수시·광양시가 공동으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늬만 전남 건설업체=송대수(민주·여수)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지역 등록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체는 54%가, 전문건설업체는 31%가 전남 이외에 사업장을 두는 등 관련법규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연락처가 전남이 아닌 종합건설업체는 927곳 중 508곳(54.8%), 전문건설업체는 2330개 회원

장 펌프 가동이 중단돼 농경지 침수 피해를��웠다. 비상전원 설치비용은 한 곳당 2억4000만원이 들어 도내 전 배수장에 시설하면 3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곽 의원은 “지난해 10월 배수장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 사례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기존 시설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한 채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은 지난해 9월 태풍 불라

벤과 덴빈의 강타로 도내 12곳 배수

관리=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를 전남도, 여수, 광양 등이 공동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도정질문에 출석한 전남도 윤진보 건설방재국장은 “이순신대교 관리는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관리해야 하지만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초기 유지관리는 도와 앙 시가 한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도와 여수, 광양시, 감리단 등 22명으로 유지관리 준비단을 구성했으며 유지관리 비용 부담 방법 등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순신대교 관리비는 연간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이를 자자체가 국가 관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순신대교 도·여수·광양 공동 관리

## 저렴한 고급별장

### 토지 4,900㎡(1,485평) 건물 245㎡(75평)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건물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시설 및 내부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의는 시무실로 내방바랍니다.

### 매매가 : 협의

최고의 도심적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3㎡당 35만원

자세한 문의는 시무실로 내방바랍니다.

### 공장·창고·전시장 등

매월 100만원대 입주 가능! 2층 1,000㎡(300평) 대형 창고 등 투자자에게 인기 있는 창고입니다.

### 공장 창고 부지

나주시 송촌동 통신대 인근 2차선도로 접 자연 녹지 16,200㎡(4,900평) 매가 3.3㎡당 20만 원(공사, 창고,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등 적합)

### 행운공인중개사무소

(구, 대창공인)

010-4610-3763

062-222-5105

## 영천 부동산

### 상가건물 대지·임야

### 전원주택·묘지

###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

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매매·임

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

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남여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무소

010-4610-3763

062-222-5105

### 중앙공인중개사

#### ♣.임대업 하실분

☆.평동공단옆 준공업지역

공장건물

대지 1,800㎡(544평)

건물 1,690㎡(510평)

보증금 7천만원

월세 880만원

(매매가 12억7천만원)

용자50억원포함

월자차 230만원

※주거자지도 있고 권리인이 있고

수리비용이 없고 공실이 없고 장

기 계약이 되어 있어 안정된 수익

이 보증됨

#### ♣.대지·전.답